

제19차 ECE/CODEX 과일주스 규격 전문가 회의

정진웅
(규격관리실)

최근 FAO/WHO Codex Alimentarius 위원회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위생문제등 식품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각국의 이익확보 및 국제 교역 분야의 확대를 위하여 많은 국가들을 회의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점차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달과 관련제품의 무역확대와 더불어 UR협상, 한미 농산물 개방문제 등을 예상할 때, 본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필자는 지난 '90년 11월 12일부터 16일(5일간)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제19차 과일주스 규격에 관한 ECE/CODEX 전문가 회의(Joint EC-E/Codex Alimentarius Group of Experts On Standardization of fruit juices, 19th session, Rome)에 참석하였는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호에서는 과일주스에 관한 회의 결과 내용과 codex회의및 국제농업기구현황, 그리고 개최국인 이태리 농업의 개황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바이다.

1. Codex Alimentarius 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원래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식품규정(Food cod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codex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식품의 등급기준, 무역및 식품제조 지침등 식품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및 국제무역시, 보다 자유로운 교역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출자하여 1963년에 설치하

였다.

이 위원회는 FAO/WHO 회원국과 준회원국이던 가입신청으로서 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89년 말 현재 가입회원국은 총 137개국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가입하였다. 소요예산은 FAO 및 WHO의 정규예산에서 각각 75%, 25%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가입회원국의 별도 재정부담은 없다. 그리고 FAO/WHO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회의에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므로써 합의된 사항을 각국에서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은 사무국을 FAO(로마)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는 일반과제 중심의 위원회, 상품 코덱스위원회, 지역별 조정위원회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등이 있다. 그리고 Codex 총회는 FAO/WHO사무국이 주관하여 제네바 또는 로마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의 각 전문분야별 코덱스 위원회는 주관을 자청한 국가로 부터 회의 장소, 각종 회의시설및 관련 써-비스를 제공받아 개최하고, 회의자료는 사무국에서 준비하여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연락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지 연락을 위하여 FAO각국 상주 대표단의 농무관을 업무상대역으로 하여 업무협의, 자료 배포등 각 회원국 상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연락기관은 회원국에 따라 농림부, 상공부, 보건부 중의 한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사회부 식품위생과가 지정되어 있다.

Codex Commission의 산하기구는 Fig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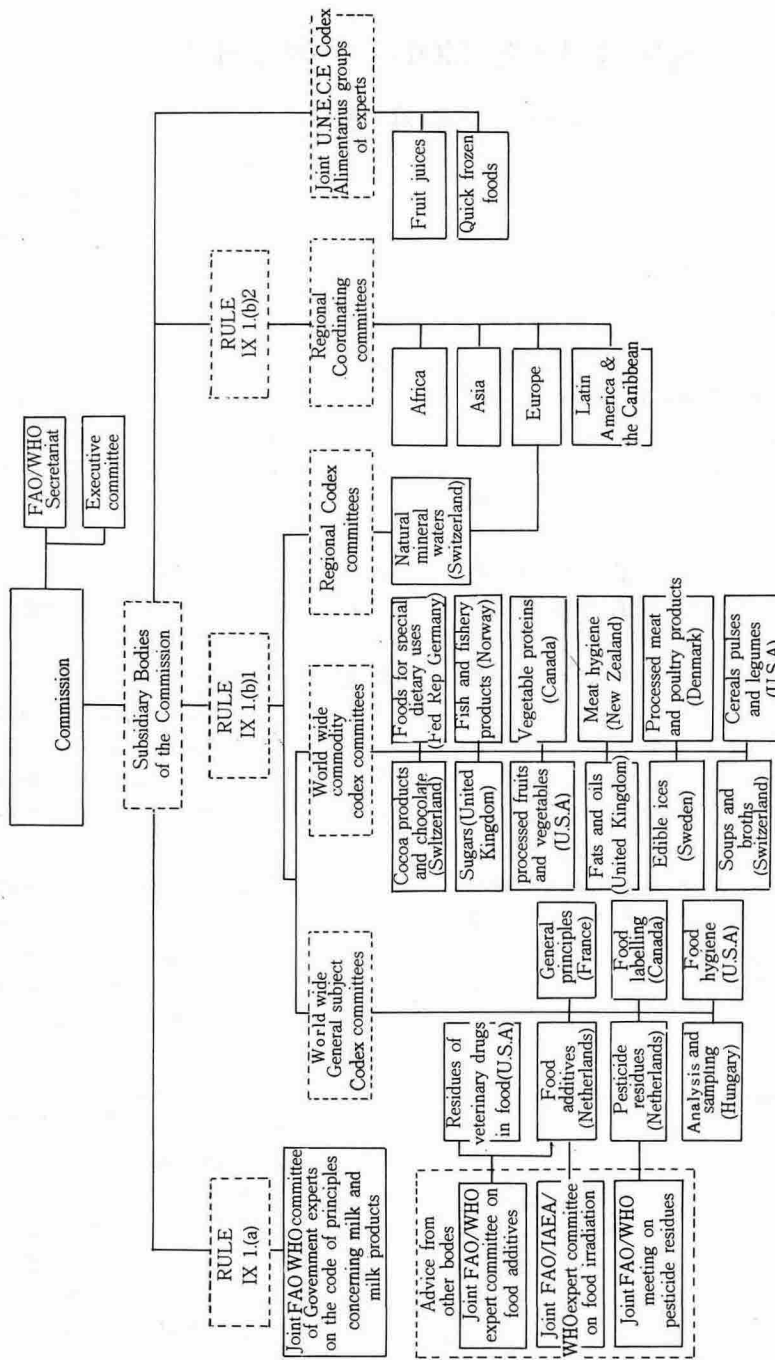


Fig 1 Subsidiary bodie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 일반과제 코덱스위원회 (General subject codex committees)

위 원 회 명	주 관 국	설치년도	비 고
동물약품의 식물 잔류독성문제	미 국	1986	
식품첨가제	네델란드	1964	오염물질 포함
농약 잔류독성문제	네델란드	1966	산업폐기 물 포함
분석과 표본채취문제	헝 가 리 독 일	1965	
일반 원칙 문제	프 랑 스	1965	
식품 표시 문제	카 나 다	1965	
식품 위생 문제	미 국	1986	

B. 상품코덱스 위원회 (Commodity codex committees)

위 원 회 명	주 관 국	설치년도	비 고
코코아, 초코렛	스 위 스	1963	
설 탕	영 국	1964	
가공과일, 채소	미 국	1964	
유지, 식용유	영 국	1964	
식용 알음	스 웨 덴	1974	
스프, 스프재료	스 위 스	1975	
다이어트용 식품	서 독	1966	영양문제 포함
어류, 어류식품	노르웨이	1966	갑각류, 연체동물포함
식물성유지	카 나 다	1980	
육류 위생	뉴질랜드	1972	
가공육, 가공육	덴마크	1966	
곡류, 두류	미 국	1980	
자연식수	스 위 스	1966	

C. 지역조정 위원회 (Regional codex committees)

- 아프리카 ○유 럽
- 아시아 ○중남미

D. 전문가 위원회

○FAO/WHO 식품첨가물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JECFA)

○FAO/WHO, IAEA 식품방사선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JECFI)

○FAO/WHO 잔류농약에 관한 회의

E. 국제기구 협조하에 운영되는 정부간 위원회

위원회명	주 관 기 구	창설연도
우유, 유제품	FAO/WHO	1958
과일주스	FAO/WHO/UNECE	1964
급냉식품	FAO/WHO/UNECE	1965

2. 과일주스규격 전문가 회의 결과

본 회의는 FAO 건물내의 Malaysia Room에서 5일간 개최되었으며 참가 현황은 아르헨티나등 24개 회원국과 유럽경제공동체 (EEC), 국제과일주스제조자협회 (IFJU) 및 유럽표준위원회 (ECS) 등 6개 국제기구에서 총 62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식품정책 및 영양분과 위원장인 Mr. John R. Lupien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진행은 Dr.W. Pilnik (네델란드)가 맡았다. 회의 진행순서 및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안건별 세부 토의 내용은 필자의 귀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중, 특히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은 과채류 주스 및 넥타의 중금속에 관한 내용 중 기존의 주석기준함량 (250mg/kg)이 높으므로 낮추자는 의견 (200mg/kg 내지는 150mg/kg)의 2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최종결정은 연기되었음)과 카드뮴, 수은, 기타 중금속에 대한 함량문제 그리고 야채주스의 일반규격에서 식물첨가물, 질산염, 납, 주석등에 대한 함량과 사용여부, 혼합과일주스의 sugars 함량의 증가, ethanol 함량의 수정 (5g/kg → 3g/kg) 및 혼합과일넥타의 식물첨가물, 중금속, 표시사항등에 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외에도 신가공 기술에 따른 과일주스의 정의, 분석방법 (essential oil, ethanol, carbon dioxide 등) 및 향후과제에 관한 안건 등이다.

이상과 같은 회의 참석결과로 미루어 볼때, 현재 codex위원회 회의는 본회의와 보조위원회회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문성 재고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각 회의마다 담당부처 및 담당자를

Provisional Agenda

<u>Agenda</u>	<u>Document No.</u>
<u>Item</u>	
1 Opening of the Session	
2 Adoption of the Agenda	CX/FJ90/1 AGRI/WP.1/GE.4/18
3 Matters of Interest Arising from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8th Session) and Other Codex Committees and Progress Report on Acceptances	CX/FJ90/2 AGRI/WP.1/GE.4/R.98
4 Consideration of Contaminants in Fruit and Vegetable Juices and Nectars	CX/FJ90/3 AGRI/WP.1/GE.4/R.104
5 Consideration of a Draft General Standard for Vegetable Juices at Step 7 - Government Comments(CL 1989 / 33-FJ)	ALINORM 89/14, APP. VII CX/FJ90/4 AGRI/WP.1/GE.4/R.99
6 Consideration of Draft Guidelines on Mixed Fruit Juices(At Step 7) - Government Comments(CL 1989 / 33-FJ)	ALINORM 89/14, App.VI CX/FJ90/5 AGRI/WP.1/GE.4/R.100
7 Consideration of Draft Guidelines on Mixed Fruit Nectars(At Step 7) - Government Comments(CL 1989 / 33-FJ)	ALINORM 89/14, App.V CX/FJ90/6 AGRI/WP.1/GE.4/R.101
8 Consideration of the Definition of Fruit Juices in the Light of New Technological Processes Used in the Preparation of Juices(CL 1988 / 29-FJ)	CX/FJ90/7 AGRI/WP.1/GE.4/R.102
9 Revision of Methods of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the Report of the <u>Ad-Hoc</u> Working Group on Methods of Analysis	CX/FJ90/8 AGRI/WP.1/GE.4/R.103
10 Future Work Programme	
11 Election of Chairman	
12 Other Business	
13 Adoption of the Report	

지정하여 책임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분담 부처간의 의견조정 및 정책협의등을 위하여 정부 관련부처간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전체 codex회의 내용을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재의 codex 식품규격위원회에 관련 민간단체를 광범위하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특히, 식품산업의 민간참여 필요성 및 중요성 때문에 향후 민간대표의 회의 참석도 바람

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FAO/WHO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본 업무는 내용상 농림수산부 관장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상에 있어서도 FA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농림수산부에서 본 업무를 관장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국제농업기구현황

세계적으로 농업관련 국제기구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등 4개 기구로서, 최근에 접어들어 전문분야회의의 신설운영 및 참가활동의 전문화 추세로 관련 분야의 행정,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회의에 참가 하므로써 회의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활동도 '88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여 FAO이사국피선('89~'91년), IFAD이사국 연임, IFAD기여금 증액 및 77아시아 그룹 의장국 피선('90.11) 등으로 국제회의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농업기구의 현황과 아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가. 연혁및 성격

- 세계 기아해방및 빈곤퇴치를 위해 1945년 10월 16일 최초의 UN전문기구로 발족
- '91년 1월 현재 158개국 이 가입, 그중 121개국이 상주대표부를 설치(독립 대표부 설치 회원국 : 32개국)
- 주요업무 : 세계식량안보, 개도국 식량문제 해결및 농업개발 촉진에 핵심적 역할 수행.

나. 목적

- 전 인류의 영양및 생활수준 향상
- 식량및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 능력 증진
- 농민의 생활상태 개선
- 세계 경제 발전 기여 및 기아로 부터의 해방추구

다. 주요기능및 사업

- 4대 기능 : 농업기술 지원, 정책 자문, 농업정보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개최.
- FAO정규 사업, TCP사업, UNDP사업, Trust Fund사업등 현지사업 추진
- 농업관련 타 국제기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World Bank, IFAD, IDA, ADB등(연간 150억 불 규모)

라. 조직및 인원

- 의결기구 : 총회, 이사회, 위원회, 지역총회
 - 총 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 격년제 개최(기수년)
 - 이사회 : 49개 이사국, 임기 3년, 연 2-3회 개최
 - 위원회 : 이사회 보조기구로 8개 상임위 설치
 - 지역총회 : 6개 지역별로 구분, 격년제 개최
 - 기타,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 세미나, 워크샵 등
- 사무국
 - 사무총장 : 총회에서 선출 임기 6년, 현 총장은 Mr. Saouma(레바논 '87.11 3선)
 - 본부 : 총장, 차장, 4실 7부, 27국 97과에 3,200여명 근무
 - 지역 사무소 : 아태 지역 사무소(방콕)등 6개
 - 현지사업을 위한 국가과건 FAO직원 : 104개국 3,000여명

바. 예산구조

- 회원국의 정규 분담금및 특별 기여금으로 일반세입 충당.
 - '90/'91 일반 예산 : 638백만불
 - 주요국별 분담별('90/'91) : 미국 25%, 일본 13.5%, 독일 9.65%, 프랑스 7.47%, 영국 5.89%, 이태리 4.77%, 한국 0.26%
- 기타 현금 수지 관리및 환차 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운영
 - Working Capital Fund(12.3백만불)
 - Special Reserve Account(4.4백만불)

사.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49.11월에 FAO가입, 1968년 상주대표부 설치(현재 6명 등록)
- 분담율은 가입 당시 0.14%였으나, '90/'91에는 0.26%(723,840불)
- 수혜 실적 : '89.1현재 총 127백만불
 - 식량원조 : 103백만불
 - UNDP사업 : 21백만불
 - TCP사업등 기타 : 3백만불
- '87년 11월 제24차 총회시 이사국에 피선('89~'91)

2)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가. 설립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 '70년대 자원과동 이후 개도국 농업 개발 자원의 실체화 논의에서 중동산유국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76년 12월 20일 UN산하 기구로 발족.
- 목적 : 심화되는 세계 식량문제 해결과 농촌 빈곤해소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의 집중지원 및 무상원조.

나. 회원국 : 143개국

- 회원국의 자격은 UN 또는 UN전문기구 가입국
- 회원국의 구분
 - Category I (OECD국가) : 21개국
 - Category II (OPEC국가) : 12개국
 - Category III (개도국) : 110개국

다. 기금현황

- 현재까지의 총규모 : 2,514백만불
- 창설 당시 및 1차 기금조성 : 2,049백만불
- 제2차 기금조성 ('84~'87) : 465백만불
- 제3차 기금조성 ('90~'93) : 현재 566백만불 확보

라. 조 직

- 총 회 : 최고 의사 결정기구 매년 1회 개최
- 이사회 : 36개 이사국(각 category별 12개국), 임기 3년
- 사무국 : 총재, 부총재 및 3명의 총재보 포함. 250명의 직원이 근무중.
 - 총재 : 총회에서 선출, 임기 4년
 - 현총재 : Idrias Jaziary (알제리 89, 1 재선)

마. 우리나라와의 관계

- 창설회원국 (Cat. III 소속 '78.1.26일 가입)
- 창설이후 2회 이사국 역임 ('81-'83, '87-'89)
- 아국 분담금은 당초 20만불, 1차 29만불, 2차 30만불, 3차 200만불

3) 세계식량원조계획
(World Food Programme)

가. 설립배경 및 연혁

- 개도국의 기아행방을 위한 잉여 농산물 원조를 목적으로 1961년 UN총회 및 FAO총회에서 WFP창설을 결의.
- 1963년 1월 WFP활동을 개시하여 제1회 식량원조회의 개최.

나. 목 적

- 경제 사회 개발을 증진시키고 식량원조를 통해 식량 비상상태 해결.
- 각국의 기관 급식사업을 원조하여 급식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

다. 조 직

- CFA(식량 원조 정책 계획 위원회)
 - 30개 위원국으로 구성(ECOSCO, FAO이사회에서 각각 15개국씩 선출)
 - 임기 3년, 연2회 정기회의 개최, 개별사업심사를 위한 소위원회(SCP)설치 운영
- 사무국
 - 사무국장 : CFA심의를 거쳐 유엔 및 FAO 사무총장이 임명, 임기 5년 현 사무국장 James Ingram (호주, '87년도 재선)
 - 본부 : 116개국에 439명 근무, 현지사업 1,080명 근무.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6년 10월 20일 제8차 WFP정부간 위원회 위원으로 가입
- '66~'68 제1차 서약 기간중 6천불 납부
- '89~'90 기간중 12만불 납부 서약(총서약액 14억불)
- 아국은 '64년이후 '84년까지 총 23개 사업 102.6백만불 수원
- 최근 WFP측은 아국에 대해 서약액의 증액 및 특별원조를 요청.
- 원조 공여국으로의 불가피한 지위 변화등을 고려하여 WFP활동에 적극 대비하여야 함.

4) 세계식량이사회(World Food Council)

가. 설립연혁

1974년 세계식량회의 및 UN총회 결의로 세계식량 농업정책 토의 및 권고기구로서 고의 각료회의 설치

나. 조직 및 기구

- 사무국장(임기 4년)의 40여명 직원이 근무중.
- 각료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UN/ECOSOC에서 임명된 36개 이사국으로 구성(임기 3년)
-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다. 주요 활동 내용

- 세계식량사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을 강구하여 UN총회에 건의.
- TCDC 및 ECDC의 기본 방향 설정.
- 세계 빈곤 및 기아 해소를 위한 공동실천지침인 Cairo선언 채택('89년 5월)

4. 이태리의 농업

이태리는 면적 30.12만km²(한반도의 약 1.5배)로 인구 5,750만명이며, 최근 양국간 교류 규모의 확대로 1500만불의 무역규모를 가진 EC회원국중 4번째 교역대상국이다.

1) 1988년도 이태리 농업 일반 개황

- 경지면적 : 169,921km²(임산지, 목장 포함)
- 국토 면적 대비 56.4%(국토면적 : 301,279km²)
- 농업 고용인구와 생산부가가치

	고용인구(천명)	생산부가가치(조리라)
전체	23240(100.0%)	1040.1(100.0%)
농업	2423(10.4%)	43.2(4.2%)

- 고용인구 : EEC 8.0%, 미국 3.0%, 일본 8.5%
- 생산부가가치 : EEC 3.5%, 미국 2.1%, 일본 3.0%
- 식품 소비의 유형
- 육류(28.0%), 과일·채소류(22.9%), 유제품류(13.8%), 곡물류(11.6%)순

○ 농업 생산의 구성

- 축산물류(38%), 곡물류(36%), 과실류(24%), 임산물류(1%)순

○ 농산물 교역('88)

(단위 : 10억 리라)

	수입	수출	무역수지
1970	17,176	5,769	-11,407
1980	14,790	8,969	-15,821
1988	28,781	11,510	-17,271*

* '88무역적자의 71%가 축산물 수입으로 발생

2) 이태리 농업과 농업정책

가. 농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농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은 계속 감소되나, 타 EC에 비해 아직도 중요한 위치 점유
- 농업생산 EC 2위(25%), 농업총고용 EC 1위(31.2%)
-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는 타분야의 절반 수준
- 농업근로자 1인당 소득은 타분야의 72.5% 수준
- 농업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타분야의 20~25% 수준

나. 가족 경영위주의 소규모 경작체제

- 타 EC국가 대비 영세한 경작모임.
- <호당 경작규모>
- 이태리 : 7.2ha, 프랑스 : 25.4ha, 독일 : 15.3ha
- 경지면적 5ha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0%
- 20ha 이상 보유 농가(5.3%)가 전체 경지의 59.3% 보유

다. 높은 식품소비 지출

- 가계지출중 음식물비의 비중은 계속 감소되나 아직도 높은 수준
- 이태리 : 22%, 프랑스 : 17%, 독일 : 13%
- 어류, 비알콜 음료, 감자식품등이 성장한 반면에 주류, 육류는 감소 추세

라. 활발한 생산자조직 활동

- 원예생산자 협회는 122개, 19,000명 가입

- 전국적 Computer망을 통해 생산계획, 시장정보 등 교환

○ 유제품, 올리브유, 포도주등도 30-70개 협회가 활동

마. 소매상 위주의 유통 구조

○ 상품의 다양화, 거래 규모의 소량화 등으로 전통적 도매시장은 쇠락한 반면에 '80년대부터 소매거래는 현대화되고 집중화됨

○ 현대화된 체인점에서 전체 매출의 25%, 신선농산물의 50% 이상 거래

○ 생산자 조직에 의한 1차 가공 농산품 생산 및 판매 계속 확대되는 실정임

바. 환경과 연계된 농업정책

○ 국가식물방역계획의 추진('87.9월 수립)

- 농약 사용량의 감축과 정확한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

- '87부터 농약 Atrazine, Molinate 사용 통제

- 농약사용의 용도, 방법 등 농약사용기록 의무화

○ 환경보호 관련시책의 추진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기술의 개발, 보급

- 관광농업 확대 추진(6,500농가가 참여, 6만단지 조성, 6백만 관광객이 관람)

3) EC공동농업정책과의 연계성

가. EC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1) EC공동농업정책의 현안사항

○ 농업보조정책의 강화로 역대 높은 가격수준이 지속됨으로써 공급과잉과 재고누적을 초래

○ 지속적인 재정지출증가로 EC의 재정부담 가중

- EC전체재원의 70%를 농업보조에 지출

○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과잉재고처분에 충당

- 농가실질소득과 부가가치는 오히려 감소

(2) EC공동농업정책의 주요 정책수단

○ EC공동농업정책(CAP)의 기본골격

- 기본 Schemes

• CAP의 기본정책목표와 지침 설정

• 농업고용의 안정, 지역간 균형개발, 농산물교역의 적자해소 등

- 수평적 조치

• 국가경제 전체 및 타산업 부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치

• 법령제정, 단체, 행정조직, 지역계획, 연구조사 등

- 수직적 조치

• 농업내부 개발생산부문에 대한 제반조치

• 시장흡수능력, 생산체제의 수준등을 감안한 품목별 개발전략수립

○ CAP에 의한 일반적 농업지원제도 유형

- 생산자 가격보조: 농가소득적정보상을 위한 국내가격지지

- 수입부과금제: 제3국 농산물에 대한 보호장벽 설정

- 수출보조금제: 농산물수출장려(특히 과잉재고처분에 활용)

- 생산자 직접보조: 휴경보상, 이농촉진 등에 직접 지급

나. 이태리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1) EC공동농업정책의 최근 동향

○ 1987년 Single European Act 발효이후 CAP의 주요 정책방향은 농업에 대한 인위적 개입의 축소, 생산자 책임제 실시 및 질적생산의 확대 등에 두고 있음.

○ CAP의 생산자 가격보조는 현상유지내지 하향조정, 생산가격보조 제한은 종전의 유채, 해바라기씨등 유지류에서 콩, 올리브유, 토마토 등에까지 확대하여 적용

○ 최근의 EC의 보조금 축소정책은 남북간의 격차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태리 농업에 치명적 영향

(2) 이태리 농업정책의 개선방향

○ 과잉생산방지 및 수급균형을 위한 조치강화

- 가격동결 또는 인하

- 최대보증량제 도입 및 농민공동책임제 실시

- 시장기능의 활성화

○ 저소득 낙후지역 농민소득보장 확대

- 남부지역개발을 위한 구조개선 투자확대 (지중해지역 개발계획: IMPS등)

- 산지, 오지농민 보상기준 강화

○ 농가부담경감(세계 혜택)과 사회보장지원

다. 1989년 이태리 신농업 계획

(1) 계획수립의 배경

○세계 농산물교역의 44%를 차지하는 EC는 현재 상당히 무거운 비중의 보조금을 지출함으로써 세계 농산물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난에 직면

—농업재정중 보조금 비중 : 일본(25%), EC(19%), 미국(16%)

○이태리는 지난 10년간 농업부문의 저성장(2% 미만)으로 농가실질소득의 감소, 지역격차의 확대 및 농업재정적자의 누적 현상 초래

(2) 신농업계획의 추진 방향

○농가소득증대를 최종목표로 하고 재정적자축소, 적정규모의 고용유지, 환경보존적 농업발전등을 목표로 설정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환경과의 연계성을 증시하면서 수요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생산자조직의 활동강화,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지역균형개발 등임.

4) 한국, 이태리 농업 협력사회의 추진

○한, 이 과학기술공동회 합의사항 추진

—공동위설치 : '84.2. 제2차 회의 개최 : '88.4.
—양국 원예시험장간 과수육성 기술및 유전자 교환 합의

○양국간 농업기술 교류 확대

—가공식품, 특히 육가공 기술자의 교환추진
—잠업분야 훈련생 파견(밀라노 실크연구소 1년 연수)

○한, 이 농산물 교역분야 개발

—최근 이태리 농산물 수입급증 추세

• 주요수출품 : 냉동수산물, 잎담배, 인삼등
• 주요수입품 : 포도주등 주류, Pasta류, 과일주스, 육가공품등

—'86 : 수입 1.6만불, 수출 9.5만불

'89 : 수입 20.1백만불, 수출 11.6백만불

—아국의 갯지렁이 수출('89; 700천불)